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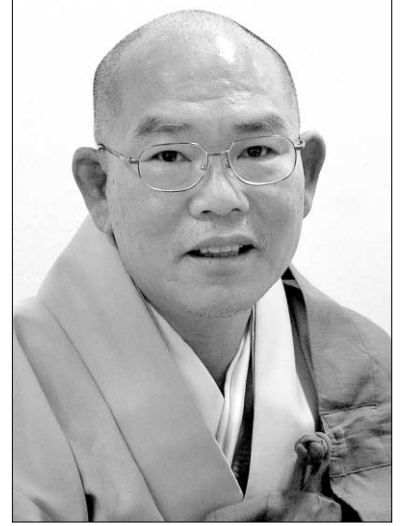
###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10강 :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 계율-지계제일 우바리

강사: 철우 스님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현대불교  
일시 : 2005.12.7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 계율,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 들이는 것

**<삼귀의>**  
계율 받는 저희들은 -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 법문에 귀의하겠습니다.  
- 청정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오계>**  
1. 살생하지 말지니,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겠습니다.  
2.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짓겠습니다.  
3. 음행하지 말지니, 몸과 마음으로 청정행을 닦겠습니다.  
4.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 진실을 말하여 신뢰를 지킵니다.  
5. 술을 마시지 말지니, 언제나 밝고 통달한 지혜를 받들어 가지겠습니다.  
이것이 오계이니 '목숨이 다하도록 잘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저는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율주(律主)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흔히 율사는 엄격하고 부드럽지 않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저는 포청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계 제일로 칭송 받는 '우바리(優婆塞)' 존자를 보면 율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부처님 10대제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바리 존자는 인도의 사성계급 중에서 천민에 속하는, 쇠가족의 이발사였습니다.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이 열반에 들자 부처님은 손수 장례를 치르고 석씨 종족들에게 사성계 법문을 설합니다. 이때 이발사 우바리도 어깨너머로 법문을 들던 중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받고 깨닫습니다. 정반왕의 장례가 끝나고 부처님의 사촌동생인 아난과 제바파다 그리고 아나을, 발제, 난타 등 석씨 왕가 아이들이 부처님 뒤를 따라 출가의 길을 떠납니다. 이때 우바리도 함께 떠나 나섭니다.

기원정사에 다다르자 아나율이 묻습니다. "천민출신이 어떻게 출가를 하겠다고 하느냐?" 그러자 우바리가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 했는데 어찌 출가에 차별을 두느냐"고 반문합니다.

아나율이 반성하고 부처님에게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교만을 없애기 위해 우바리를 먼저 제도해 주옵소서"라고 청하자, 부처님이 먼저 우바리에게 비구계를 주고 다음으로 왕가 아들들을 제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민이었던 우바리 존자가 먼저 비구계를 받아 왕가 아들들보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처럼 우바리 존자는 천민도 출

가하여 왕족을 능가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도 사성제도가 엄격한 인도에서 2500여년전 당시로서는 부처님의 큰 결단이며, 인권선언으로 일대 사회개혁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왕사성 칠엽굴에서 제1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교단의 기강 확립과 율법(律法) 보호를 위해 아난 존자가 경장(經藏)을 외우고, 70세가 넘는 우바리 존자는 율장을 송출(誦出)했습니다.

경·율·론 삼장에서 경은 율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고, 논은 경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난 존자가 경장을 외우는 것보다 우바리 존자가 율장을 외우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도대체 계율이 무엇인가에 10대제자 가운데 우바리 존자를 특별하게 존중할까요. 계(戒)는 행위, 습관, 도덕, 언어에 악을 짓지 않고 방지하는 것이고, 율(律)은 부처님 제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말합니다. 계율은 허물과 악을 억제하고 조복하는 것으로 불교의 율리도덕이자 동시에 부처님의 교육관이기도 합니다.

계율은 한마디로 좋은 습관을 지니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청정한 마음과 행동 지니는 것을 계율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수행자라고 하면 당연히 '살생하지 않는다. 훔치지 않는다. 음행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네 가지와 '무소유'를 기본으로 지켰습니다. 내가 먹고 생활할 만큼만 있으면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은 무소유 대신 '술을 마시지 말라'를 늘 더한 것입니다. 스님뿐 아니라 부처님을 숭배하고 공경하는 사람이나



10월 5일 시작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12월 7일, 철우 스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 계율-지계제일 우바리' 강의와 수계의식으로 막을 내렸다.

## 천민 출신 이발사, "모든 중생은 평등" 부처님 법문 듣고 출가 오계 받으려면 삼귀의 먼저 해야... 계율없이 수행도 없다

면 모두 지나야 할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오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계에 앞서 '거룩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께 귀의'하는 삼귀의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삼귀의를 해야 오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마지막 강의입니다. 재가불자가 지나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을 새겨두고 수계의식과 함께 회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살생을 많이 하면 자비종자가 끊어집니다. 부처님은 살생을 많이 하면 고독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겁나고 무서운 지옥이 고독지옥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다 큰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한 생명을 해치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가하기 위해 사냥이나 낚시를 하고, 맛을 위해 도살을 하는 등 인간의 횡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은갖 살상용 무기가 양산되고 이윤을 위해 안전이 결여된 상품이 범람하고, 공해산업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습니다. 일체 생명의 내부에 깃든 부처님의 성품에 대한 가슴스런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도둑질을 많이 하면 복덕종자가 끊어집니다. <승업경>에서 부처님이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시길 "이 세상 중생들이 훔칠 마음이 없으면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을 것이요, 생겼다 할지라도 훔칠 마음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그릇된 길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훔치는 것을 끊지 않고 수도한다는 것은 밭이 새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서 가득 채워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허락 없이 물건을 남에게 주거나 쓰는 것도 훔치는 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가로챈다고 폭력을 가하는 것도 훔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사음하면 청정종자가 없어집니다. 사음은 정해진 배우자 이외에 다른 남자나 여인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생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상의 여인은 어머니로 알라, 중년 여인은 누이로 알라, 젊은 여인은 딸로 보라.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불제자들은 젊은 몸이면서도 욕정에 끌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깨끗이 보전하고 있다."

네 번째, 거짓말을 하면 진실종자가 끊어집니다. 그 과보로 신용을 잃습니다. 요즘 우리주위에는 불량신용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허방한 거짓말(망)과 이간질(양설), 욕설(악구), 사기(기)하는 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오로지 입을 지켜라. 무서운 불길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일체 중생의 불행은 그 입에서 생기니,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음주로 지혜의 종자를 끊을 뿐 아니라 바보가 됩니다. 불음주제는 불교신자가 기본적으로 받는 계율이며 이것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곡차라 하며 마시기도 하고, 고승의 흉내를 내어 무애행이라 하며 지키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파계는 자랑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너 자신을 미혹시키는 것을 먹지 말 것'이며, 너 자신의 소유라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잃는 일체의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술은 음주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한 술이 과음이 되고, 과음이 모든 계율을 깨뜨리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얕아져서 오계 가운데 다른 계는 다 지켜도 술 마시는 계는 지킬 수 없어 빠고 말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고만 한다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계를 이렇게 바꿔 보기도 합니다. 살생하지 말라를 자비롭게 살라, 훔치지 말라를 배품며 살라, 사음하지 말라를 청정하게 살라, 거짓말하지 말라를 진실하게 살라, 술 마시지 말라를 지혜롭게 살라라고 바꾸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5가지 계율뿐 아니라 스님에게는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가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수행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계율이 아니면 수행생활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 표본이 부처님 당시 지계제일 우바리 존자입니다. 30-40년 스님으로 살면 마음이 잔잔한 호수같이 맑을 것 같죠? 아닙니다. 스님도 때에 따라서는 눈물이 나고, 우울하고, 적막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재가자에게 모범이 되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율도 다스려야 합니다. 계율이 아니면 지탱하지 못합니다.

모든 종파를 초월해 기본적인 불교의 윤리와 도덕을 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비불교인으로부터의 도전에 막을 힘도 없어집니다. 계율의 소중함을 잘 생각하고 계율과 함께하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리·사진·이준영 기자

## 불기 2550(2006)년도 봉선사 교양대학·불교대학 모집안내

**모집과정**  
● 교양대학 : 000명(불교기초과정) ● 불교대학 : 000명(불교전문과정)

**강의시간**  
● 교양대학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4시간 강의)  
● 불교대학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4시간 강의)

**지원자격**  
● 교양대학 : 불교 기본교육을 받고 싶은 초심자, 불교 입문자.  
● 불교대학 :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원하는 자, 교양대학 졸업 이상자, 불자임.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및 접수 : 봉선사 사무실 031)527-1951~3  
● 제출서류 : 입학원서(서류전형), 원서에 사진 필히 부착  
● 접수기간 : 2549(2005)년 12월 15일 ~ 2550(2006)년 2월 28일  
※ 선착순 접수 각반 150명 (미달시 3월 31일 추가모집)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교양대학 : 불기 2550(2006)년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청풍루  
● 불교대학 : 불기 2550(2006)년 3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청풍루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 3만원 ● 수업료 : 매월 3만원  
● 교재는 별도로 각자 구입 (봉향각) - 과목은 추후 발표함.

**제 25교구 봉선사 불교대학장 주지 철안**

## 인곡당 법장대종사 100재 안내

삼보에 귀의합니다.  
전 총무원장 법장스님께서 이 사바세계와의 세연을 뒤로한 채, 저희 곁을 떠나신지 어언 100일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스님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담은 여러 덕행을 보여주신 것에 거듭 감사 드립니다. 스님께서 저희와 인연을 함께 하실 때 섭섭한 수행과 거침없는 자비행을 보여주셨듯이, 세연을 다하신 후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스님께 예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오는 12월 19일(월)은 스님께서 떠나신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들은 스님께서 베푸신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일제를 지낼 것이며, 아울러 스님을 추모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수덕사, 설정큰스님과 함께 조출한 간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더욱이 기쁘겠습니다.

**100재 및 간담회 안내**

○ 일시 - 100재 : 불기 2549(2005)년 12월 19일(월) 오전 11시  
- 간담회 : 불기 2549(2005)년 12월 19일(월) 오후 1시  
○ 장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수덕사

※ 공지사항  
1. 당초 인곡당 법장대종사를 기리는 추모음악제는 봉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봉행하지 못함을 널리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2. 인곡당 법장대종사에 관한 자료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을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지참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다.  
연락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수덕사내 회소대 ☎041-337-6627